

# 광주 자치구 '잇박자'... 일회용품 저감정책 걸돈다

### 시·4개 자치구, 다회용컵 규격 다르고 사용처 적어 매년 이용 감소 규격화 합의에도 예산없어 제작 못해... 시 "기존 컵 소진 후에 가능"

광주지역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는 일회용품 저감정책이 걸돈고 있다.

26일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서구청장이 '다회용 컵 제작 기준 표준안'을 건의했지만 반년째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처음 시행된 '서울형 다회용 컵'을 벤치마킹해 이른바 '광주형 다회용 컵'을 제작하지는 것이었다.

다회용 컵 이용자들이 광주 어느 지역에서도 용기를 반납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5개 구청장 모두 만장일치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제작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021년 선도적으로 다회용 컵 제작 및 사용에 나섰다. 광주시와 동구는 2022년부터, 서구와 남구는 2023년 다회용 컵 제작·사용을 시작했다.

북구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다회용기를 제작해 각 공공청사 인근 카페에 협약을 맺고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동구의 경우 지난해 2만 5522개의 다회용 컵이 사용됐으나 올해 상반기 사용량은 3593개에 그쳤다.

서구 역시 지난해 9000개에서 올해 3000개, 광산구도 지난해 3만 6129개에서 올해 상반기 1만 4887개로 점차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남구의 경

우 지난해 8월 시작해 현재까지 1년간 6047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구는 자체 다회용 컵을 제작하지는 않고 지난 2019년부터 자체 행사시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6년여간 사용 개수는 동구의 상반기 사용량과 비슷한 3742개에 그쳤다. 반면 광주시 다회용 컵 사용은 증가세(2022년 3만3440개→2023년 4만 4141개)다.

다회용 컵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반납시에도 구청 인근 일부 카페에만 국한됐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회용 컵의 규격이 모두 다르고 자치구별 회수기에서 호환이 불가능해 관할 지역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는 인근 카페 10곳, 서구 16곳, 남구 10곳, 광산구 15곳과 협약을 맺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회용 컵은 매장 내 이

용 컵과 별도로 일회용품 대용 개념으로, 카페 밖으로 들고나갈 수 있으며 이용 후에는 정해진 회수기에 넣으면 된다.

다회용 컵을 취급하는 업체는 서구청에서 3.4km 떨어진 동천동의 한 카페를 제외하면 모두 공공청사 인근 500m로 한정됐다.

다회용 컵 회수기 역시 동구(구청 2곳, KT 1곳,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1곳)를 제외하면 모두 공공청사 내부 한곳씩만 설치돼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으로 다회용 컵 범위 확대와 표준 다회용 컵 제작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회용 컵 제작시 친환경 소재를 고려해야 하는 탓에 컵 1개당 3500원~4000원의 비용이 들고 회수기 구매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트라이탄 소재로 회의·행사 시에는 390ml, 카페에서는 470ml 컵을 사용했고, 동구는 트라이탄 소재(384ml), 서구는 PP 재질(첫병 소

재·473ml, 621ml), 남구는 트라이탄 소재(475ml, 591ml), 광산구는 예코젠 소재(510ml, 635ml)로 만들어져 있다.

지자체들은 광주시에 다회용컵 확대와 표준 다회용 컵 제작을 위해서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표준 다회용 컵 제작이 긍정적인 취지에서 적극 검토했으나 자치구별 사용하고 있는 다회용 컵이 이미 있어 모두 소진한 뒤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다회용기의 수를 늘리고 사용 대상을 확대해 반납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며,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과 조례가 필요하다"며 "다회용컵 사용시 대여료를 받는 것도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약성 민원인, 이러시면 안됩니다" 26일 광주시 북구 통합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등 약성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김대중 전 대통령 '방탄차' 첫 공개

### 영암터미널에 9월 10일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한 '다이너스티'(사진) 방탄차량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영암군은 9월 10일 전시개막식을 열고 김 전 대통령의 다이너스티 방탄 차량을 영암읍 영암터미널 로비에 영구전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차량은 1996년 출시된 현대 자동차 플래그십 세단으로 국산 첫 특수 방탄 경호차량이다. 1997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유세지원용으로 전달했으며 이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차량으로 전국 곳곳에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이 총재에 전달된 차량은 지난 2001년 폐차됐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차량은 이회창 여사를 거쳐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 한화갑 전 국회의원으로 명이가 변경되면서 계속 운행됐다.

이후 2005년 아시아 태평양재단에 넘겨져 김호산 재단 행정실장이 10년간 소유했다. 김 행정실장은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역사적 가치

를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기증을 결심했고 영암군이 지난 2015년 소유의사를 밝혀 폐차의 위기를 벗어났게 됐다.

당초 영암군은 2016년부터 승용차를 전시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탓에 8년 동안 영암 공설운동장 야외주차장에 방치돼 있었다.

영암군은 올해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 차량의 전시를 다시 준비했다. 군은 현재 차량 시트 교체, 외관 도색 등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다. 전시는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다이너스티 차량의 역사 등 안내문구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로비에서 이뤄진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악취 민원' 광주지하철 1호선 시트 교체한다

지하철 내 악취와 위생 문제가 지적된 광주 지하철 1호선의 좌석 시트(2023년 6월 13일 광주일보 6면)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전면 교체된다.

광주교통공사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23대(92량) 중 2004년 광주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운행 시작한 13대(52량)의 좌석 시트를 전

면 교체한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에 추가 구매한 나머지 10대(40량)의 좌석 시트는 내년 중 교체할 계획으로 별도 예산이 세워진 상태다.

교체되는 지하철 1호선 좌석 시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켓'(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코트나

재킷에 쓰임) 소재로 동일하다. 색상 역시 기존과 같으나 교통약자석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눈에 잘 띌 수 있게 변경한다.

모켓 소재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염될 경우 잘 지워지지 않고 악취를 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광주교통공사는 "현재 화재안전 시험 단계를 밟고 있으며 12월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인 기자 kdi@

## 법원 "시교육청 감사라도 공공이익 부합하면 정보공개"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은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이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감

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사항 중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결과와 내부결재를 마쳐 조사가 종료됐고, 감사원에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해 공무원행위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없다"면서 "일부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비공개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1 인종기간 | 2020.10.19 ~ 2024.10.18

대한한사학회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심의필 제231129-중-63255호